

K-콘텐츠의 태동과 역동: 한류 문화유전자로서 한국어문

The Origin and Dynamics of K-Contents: Korean Language & Literature as a Cultural Gene of Korean Wave

한국 문화의 토대와 가치 가이드북

The Foundations and Values of Korean Culture Guidebook



01 한국현대문화의 정체성

교수자: 장문석

1차시	학습목표
2차시	한국문화의 정체성 탐구의 방법
3차시	한국문화의 정체성 형성 과정
4차시	한국문화 정체성 형성의 4단계
5차시	정리하기



K-컬처·스토리콘텐츠연구소

K-CULTURE-STORY CONTENTS RESEARCH INSTITUTE
KYUNG HEE UNIVERSITY

강의 개요

주차명	한국현대문화의 정체성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문화의 정체성과 한국문화 정체성 탐구 방법을 파악한다 ■ 한국문화 정체성 형성의 4단계를 파악한다 	
강의방식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수자 얼굴 위주 촬영 비디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PPT슬라이드와 오디오 <input type="checkbox"/> 인터뷰 촬영 <input type="checkbox"/> 대화 촬영 <input type="checkbox"/> 현장 촬영	
강의언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국어 <input type="checkbox"/> 영어 <input type="checkbox"/> 기타()	
자막언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국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영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국어 <input type="checkbox"/> 수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베트남어)	
차시	차시명	학습내용
1	학습목표	핵심 질문 알아보기 핵심 단어 알아보기
2	한국문화의 정체성 탐구의 방법	한국문화의 정체성 한국문화 탐구 방법 제시
3	한국문화의 정체성 형성 과정	한국문화와 한국문화 정체성의 특징 한국문화의 형성 과정
4	한국문화 정체성 형성의 4단계	한국문화 정체성 형성의 시기분류 한국문화 정체성 형성의 4단계
5	정리하기	학습 내용 정리 다음 강의 예고
학습활동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영상 강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읽기 자료(pdf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퀴즈 등 연습문제 <input type="checkbox"/> 토론/토의 <input type="checkbox"/> 시연 및 현장 방문 <input type="checkbox"/> 실습(실험, 시뮬레이션) <input type="checkbox"/> 개인 과제 <input type="checkbox"/> 협력 과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간접 탐방 - 관련 유튜브 영상 시청 및 위성 사진 자료 검색)	



한국어 스크립트 | Korean Script

1차시 | 학습목표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의 토대와 가치’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에서 다루는 대상은 한국문화, 특히 한국현대문화입니다. 그리고 공부하고자 하는 주제는 모두 세 가지입니다. 바로 한국현대문화의 토대, 주제, 가치입니다. 첫째, 이 강의에서는 한국문화의 토대를 공부합니다. 한국문화가 어떤 토대 위에서 전개되었는지 공부하는 겁니다. 둘째, 이 강의에서는 한국문화의 주제를 공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한국문화를 만들어왔는지 공부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 강의에서는 한국문화의 가치를 공부합니다. 한국문화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 공부하는 것입니다. 한국문화의 토대는 2주차에서 4주차까지, 한국문화의 주제는 5주차에서 7주차까지, 한국문화의 가치는 8주차와 9주차에 공부합니다. 토대, 주제, 가치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한국현대문화의 정체성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 강의의 목표입니다.

오늘은 10주차 중 1주차 강의입니다. 1주차에서는 한국현대문화의 정체성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2주차 이후의 공부를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한국현대문화의 정체성을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한국문화의 토대, 주제, 가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주차에는 강의 전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현대문화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현대문화는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단계를 거쳐 전개되었는가?’입니다. 이번 주차 강의의 핵심단어는 한국문화, 정체성 그리고 문화 접변입니다. 이것으로 1차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시 |

여러분, 안녕하세요? 2차시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한국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싶을 것입니다. 한국문화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한국문화의 정체성은 고유한 것일까요? 아니면 시간에 따라 변해가는 것일까요? 20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한국문화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였고,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930년대에 있었던 답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주목할 사람은 김태준이라는 문학사 연구자입니다. 김태준은 1905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는 서당에서 한문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태준은 식민지 조선의 대학이었던 경성제국대학에서 중국문학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는 제국 일본의 아카데미즘과 중국학이라는 맥락에서 학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중국고전문학을 연구하는 한편,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기도 합니다. 그는 중국에서 동시대 동아시아의 현실과 그 안에서 문학의 위치를 살펴보았습니다. 김태준은 일본의 학술과 중국의 문학에 대해서 깊고 넓게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과 중국에 대한 넓은 시각을 바탕으로 한국의 고전문학을 연구하면서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탐구하였습니다. 김태준은 한국 전통문화에 애정을 가지고 문화재와 자료를 찾아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김태준은 그것을 간송 전형필에게 소개하여 그가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현재 간송미술관에 소장된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김태준은 한국고전문학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1930년대 당시 한국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던 조선학 운동, 즉 한국학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였습니다. 1930년대 한국에서는 한국문화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은, 한국문화가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외국문화가 유입되면서 전개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시각은 한국문화의 고유성을 인정하지 않고, 한국문화는 외국문화에 압도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이 입장은 문화의 교류를 긍정하지만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그 자체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독자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들은 한국문화가 가장 빛났던 시기가 신라시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형성된 한국문화의 전통이 20세기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고유성의 시각에서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의견은 한국문화의 고유한 특징을 잘 보여주지만, 동시에 한국문화를 한국만의 것으로, 즉 고립적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문화를 고유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문화와 외국의 문화가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한편 한국문화의 고유성을 순수한 것이라고 생각할 경우, 외국문화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로 바뀔 위험도 있습니다. 김태준은 이 두 가지 생각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김태준은 외래문화의 영향만을 강조하지도 않았고, 한국문화를 고정적인 고유문화로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문화의 전통을 존중하였지만, 그것을 고립적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문화가 다른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서 전개되고 발전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김태준은 “원래 민족문화란 독자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요, 인근 부족 또는 민족의 문화의 교류에서 융합되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보기에 한국문화는 그 이전까지 이어지던 전통문화가 주변 국가에서 들어온 외래문화와 접촉하면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김태준은 한국의 전통문화가 외래문화와 만나면 어느새 그 둘은 융합되어서 구별이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한국의 전통문화가 외래문화가 만나고 융합하면서 한국문화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한국문화의 새로운 단계는 곧 한국의 새로운 전통이 되고, 그것이 다시금 외국의 문화와 접촉하고 교류하게 됩니다. 김태준은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한국문화는 전개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김태준은 한국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지만, 동시에 외래문화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전통과 외래문화가 만나면서 한국문화가



형성되고 전개된다고 보았습니다. 김태준은 한국고전문학을 깊이 공부하였는데, 그는 한국고전문학 역시 이러한 과정으로 전개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조선시대 한국인들은 중국문학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며, 중국문학이 한국에 신속하게 유입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문학의 독서가 한국문학의 문예부흥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김태준이 중시한 한국문학의 고전은 춘향전입니다. 그는 고전소설과 가사를 한국문학의 전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삼국지연의, 서상기 등 중국소설이 외래문화로서 한국에 들어왔다고 보았습니다. 김태준은 한국문학의 전통이 외국에서 들어온 중국문학과 만나면서 '춘향전'이라는 새로운 전통이 형성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식민지 시기의 문학사가이자 비평가, 그리고 시인이었던 임화도 김태준의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1908년에 태어난 임화는 처음에는 서양문화의 유행에 큰 관심을 보였지만, 이후 한국고전에도 관심을 가졌고 나중에는 현대문학사도 썼습니다. 임화는 한 번 수립된 문화가 얼마나 순수한 것인지 묻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임화 역시 문화는 외래문화를 섭취하면서 자신을 풍요롭게 만들어 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그는 한국문화의 독자성이 고유한 무언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각기 다른 전통에서 출발한 여러 문화가 한국에서 서로 접촉하면서 한국문화를 제3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내는데, 그것이 바로 '문화의 고유성'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임화는 현대문학사를 쓸 때도 이러한 구도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는 춘향전과 같은 고전소설이 한국문학의 전통을 형성하고, 20세기 초 일본을 통해 들어온 서양문학이 전통과 만나면서 한국현대문학을 형성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조금 더 이론화하여서 과거의 전통이 이식된 문화와 접촉하고 융합하여 새로운 제3의 무언가가 만들어진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통 문화와 외래문화를 융합하는 사람의 주체성이 중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주체성을 가지고 전통문화와 외래문화를 융합하는 과정에서 한국문화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김태준과 임화의 시각을 '문화 접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 통신 등의 발달로 여러 국민국가들은 서로 문화를 주고받으면서 교류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사회가 자신의 필요성에 의해 다른 사회 문화를 차용하고 이식하여 자신의 전통과 결합시키는 과정이 '문화 접변'입니다. 문화 접변은 한 나라의 문화를 고립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문화의 영향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외국 문화의 영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비주체적인 수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 접변은 한 나라의 문화가 주체적인 필요에 따라 외국문화를 수용하고 융합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김태준과 임화는 이처럼 문화 접변의 시각에서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강의에서도 이러한 문화 접변의 과정을 통해 한국문화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2차시에서는 1930년대 김태준과 임화가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전통문화와 외래문화 모두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두 가지가 만나고 융합한 것이 한국문화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각을 문화접변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2차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차시 |

여러분, 안녕하세요? 3차시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전통문화와 외래문화가 만나서 한국현대문화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동아시아의 국가 한국은 서양과 만나게 됩니다. 이 시기 한국문화의 전통은 서양이라는 외래문화와 만나게 됩니다. 만남은 융합을 의미하지만 약간의 어긋남도 있었습니다. 전통문화와 외래문화의 만남과 어긋남의 양상을 ‘천로역정’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로역정〉은 알레고리 기법으로 창작된 작품입니다. 크리스천이 만나는 여러 인물들은 실제 인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천성을 향해가는 크리스천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생각과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동아시아에는 서양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기독교를 전하였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은 성경과 〈천로역정〉을 번역하였습니다. 〈천로역정〉은 19세기 중 후반 동아시아에 번역되었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책이 1895년에 간행된 책 〈천로역정〉입니다. 이 책은 외래문화와 전통문화가 만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책의 내용이 17세기 영국의 문학작품입니다. 내용 자체가 외국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책의 언어는 한국어이며, 그 한국어는 한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천로역정〉의 특징은 그림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어본 〈천로역정〉에도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인물들은 한국식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한복을 입고 갓을 썼습니다. 〈천로역정〉은 전통시대 조선의 소설책과 형태 및 인쇄방법이 같습니다. 즉 〈천로역정〉은 외국의 작품을 한국의 언어, 글자,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외국의 문화가 한국의 전통과 만난 것입니다. 이러한 〈천로역정〉의 모습은 외래문화가 한국문화와 만나는 문화접변의 예시를 잘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이 책은 한국에서 가장 먼저 번역된 서양문학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새로운 문명과 세계에 관심이 있었던 한국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에는 어긋남도 있습니다. 그 어긋남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려면, 중국어본 〈천로역정〉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간행된 〈천로역정〉 중국어본입니다. 중국어본 〈천로역정〉은 한국어본 〈천로역정〉보다 먼저 번역되었고 한국어본 번역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중국에서 〈천로역정〉은 두 가지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한문과 중국어, 두 가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천로역정〉이 번역될 때는 하나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다만, 책을 목판으로 인쇄하기도 하였고 활자로 인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어본과 한국어본의 책 모양을 비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어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국어본의 모습입니다. 두 판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발견하셨나요? 중국어본과 한국어본 모두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중국어본은 한자로 표기하였고, 한국어본은 한글로 표기하였습니다. 중국어본에는 띄어쓰기, 문장부호, 주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본에는 띄어쓰기, 문장부호, 주석이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중국어본은 목독의 독서 문화에 적합한 텍스트이고, 한국어본은 낭독의 독서 문화에 적합한 텍스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는 책을 읽을 때 목독, 즉 조용히 읽고, 정독, 즉 자세히 읽습니다. 그리고 대개 혼자 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서 문화는 근대에 들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통시대 한국에서는 책을 낭독하였습니다. 누군가 소리 내어서 책을 읽었고 다른 사람은 그가 읽는 책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으면 아무래도 정확하게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독,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책을 읽게 됩니다. 전통시대 한국에서는 공공의 장소에서 이야기꾼이 소설을 소리 내어 읽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 소설을 들었습니다. 공동체의 읽기였습니다. 전통시대 한국의 소설책은 낭독, 통독 그리고 함께 읽기 등의 독서문화에 적합한 형식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전통시대 한국의 고소설 춘향전도, 중국 소설을 번



역한 삼국지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두 책 모두 한글로 표기하였고 띄어쓰기 없이 책을 제작하였습니다. <천로역정> 역시 '고소설 춘향전'과 '번역소설 삼국지'와 같은 형태의 책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천로역정>은 외국에서 들어온 번역 작품이었지만, 한국의 독서문화와 출판문화의 전통에 따라서 번역 출판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천로역정>은 통독, 낭독, 함께 읽기라는 독서문화에 적합한 형태로 출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화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한국에서 번역된 <천로역정>은 통독에 적합한 형태였지만, <천로역정>의 내용은 정독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로역정>은 알레고리 기법으로 쓰인 작품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인물이 천성을 향해 가면서 마음을 의인화한 인물을 여러 차례 만납니다. 따라서 독자는 크리스천이 어떤 인물을 만나면서 천성으로 나아가는지, 즉 크리스천이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천성으로 나아가는지 정밀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작품은 독자에게 정독을 요청하였지만 출판된 책의 형태는 정독보다는 통독에 적합한 형태였습니다. 중국어본 <천로역정>은 정독에 적합하게 출판되었습니다. 띄어쓰기, 문장부호, 주석은 모두 독자가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게다가 한자는 표의문자이기 때문에, 낯선 이름의 인물을 독자가 만나더라도 독자가 한자를 보고 생각하면 그 뜻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천로역정>에는 이천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중국어본 독자는 이름의 한자를 보면서 뜻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독자는 이 이름이 '쉽게 옮긴다'라는 뜻이고, '갈팡질팡한 마음을 뜻한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본 <천로역정>에서 표음문자인 한글로 '이천'이라고 쓴다면, 독자는 그 소리는 알 수 있지만 뜻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천로역정>은 정독이 필요한 외국 작품이 통독에 익숙한 한국 문화의 전통과 만난 것입니다. 다만 그 만남은 무엇인가 조금 어긋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번역자들도 이러한 어긋남을 잘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번역자는 <천로역정>의 서문을 통해서 독자에게 읽기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서문에서는 선한 사람의 이름은 선하게 지었고 악한 사람의 이름은 악하게 지었으니 독자는 이름을 보고 뜻을 생각하라고 요청합니다. 즉, 정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둘째, 번역자들은 <천로역정>의 본문 앞부분에 인물 소개를 추가하였습니다. 각각 인물의 이름과 뜻을 정리하여서 독자가 이름에 유의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책의 형태 자체를 바로 바꿀 수는 없지만, 번역자는 독자에게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독서 방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천로역정>의 최초 번역에서는 외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만나면서도 조금 어긋났지만, 이후 보완을 통해 그 어긋남을 조정하게 됩니다. <천로역정> 최초 번역에서는 외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만나면서 조금 어긋남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독자들은 <천로역정>을 읽으면서 새로운 세계와 삶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작품을 통해 새롭게 만난 서양을 배우고 새로운 세계를 고민하고 새로운 삶을 열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새로운 한국 문화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천로역정>의 번역은 한국문화사에 새로운 과제를 남깁니다. <천로역정>의 번역 결과, 한국문화는 그 전까지의 독서방법인 통독, 낭독, 공동체의 독서와는 사뭇 다른 정독, 묵독, 개인의 독서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문화는 '정독, 묵독, 개인의 독서에 걸맞은 책의 형태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묵독과 정독에 적합한 책의 형태를 찾았고, 그러한 책의 형태를 통해서 한국의 출판문화를 전개하였습니다. <천로역정> 출판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15년 후인 1910년 <천로역정>을 다시 인쇄하게 되었습니다. <천로역정>을 다시 출판할 때 번역 문장은 그대로 두었지만, 한글 이름 뒤에 괄호를 표시하고 한자 이름도 함께 적었습니다. 한자를 함께 적었기 때문에 독자는 인물의 이름 뜻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긋남을 보완하면서 한국문화가 전개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천로역정>을 통해 외래문화가 한국문화의 전통과 만나서 새로운 한국문화가 생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외래문화와 전통문화가 처음 만날 때는 어긋남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어긋남을 조정하면서 한국문화를 전개하였습니다. 이것으로 3차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차시 |

안녕하세요. 4차시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한국 현대문화의 정체성이 단계별로 변모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현대 문화의 정체성은 크게 4단계를 거쳐서 형성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입니다. 이 시기는 한국의 문명전환기로 동아시아의 국가였던 한국이 서양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1920년대에서 1930년대입니다. 식민지 근대의 경험을 통해 한국문화의 정체성이 재구조화되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입니다. 냉전과 한국전쟁, 미국화, 산업화의 과정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이 다시 한 번 구조화하는 시기입니다. 네 번째는 시기는 1990년대 중후반 이후입니다. 탈냉전, 초국적 자본의 등장, 지구화 등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이 다시 한 번 구조화되는 시기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한국문화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네 단계를,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할 인물과 작품과 함께 겹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입니다. 조금전 <천로역정>을 통해 이 시기의 상황을 살펴 보았습니다. 전통시대의 중국, 일본과 공동 문명권을 형성하였던 한국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문명사적 전환을 경험합니다. 세계에 대한 지식이 유입되면서 한국인이 생각하는 세계는 공간적으로 전지구범위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대적 기술의 발달과 함께 한국에는 철도와 통신이 놓이게 됩니다. 철도와 통신을 통해 한국은 세계와 연결됩니다. 이 시기에 세계의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한국인은 전 세계를 하나의 지구로 인식하고 세계인과 동시대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인은 철도를 타고 세계를 일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남선은 철도로 세계가 연결되었다는 놀라움을 작품 <세계일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1902년대 여성작가 나혜석은 실제로 세계일주를 다녀옵니다. 최남선은 2주차에서 나혜석은 6주차에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한국에는 서양인, 서양출판물, 서양사상, 서양제도가 들어옵니다. 앞서 3차시에서 <천로역정>을 사례로 공부한 것처럼 한국의 전통과 서양의 문화가 만나게 되면 문화의 차이로 인해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 차이를 조정하면서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의 들어온 서양문학작품 중 대표적인 작품이 톨스토이의 작품입니다. 한국인들은 주체적으로 이 작품을 읽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7주차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일어난 한국의 변화는 20세기 한국문화가 전개되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1920년대에서 1930년대입니다. 이 시기 한국은 제국일본의 식민지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1919년 한국의 시민과 대중들은 3.1운동을 통해 대한독립만세를 되쳤습니다. 3.1운동은 독립을 요청하는 시위였지만 동시에 평화를 희구하는 시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점은 10주차에서 살펴봅니다. 한국의 시민들은 3.1운동을 통해 스스로 근대적인 주체로 거듭 날 수 있었습니다. 3.1운동 이후 한국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제약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하고자 하였습니다. 한국의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삶에서 실현하고자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삶에서 실현하고자 한 한국인의 모습을 4주차에서 조명희의 작품 <낙동강>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시기 한국문화는 근대화와 민주주의를 지향하였지만 식민지라는 상황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1920년대에서 1930년대 한국에서는 도시가 만들어지고 자본주의 경제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백화점과 카페 등 소비공간 역시 열립니다. 또한 3.1운동 이후에 한국인 경영하는 신문과 잡지가 창간되면서 한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한국의 문학자들은 서양에서 발생한 근대문학이라는 형식을 한국의 현실과 결합하여 한국근대문학을 창작하였습니다. 박태원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



라는 소설을 통해서 당시 경성이라는 도시의 하루를 그리고 그안에서 행복이란 무엇일까 질문하였습니다. 임화는 <우리 오빠와 화로>라는 시를 통해서 노동운동의 나섰던 오누이의 삶을 그렸습니다. 도시와 박태원 그리고 임화에 대해서는 3주차에서 공부합니다. 1920년대에서 30년대에는 많은 문학작품이 창작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4주차에서 운동주와 그의 문학을, 8주차에서는 이육사와 그의 문학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운동주와 이육사는 한국현대문화의 주체로서 동양과 서양 전통과 근대사에서 새로운 한국문화의 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동시에 이 두사람의 이동과 책임임기는 한국이라는 경계의 머물러있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현대문화는 언어와 문화의 교류를 통해 형성되고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교류는 때때로 갈등을 낳기도 합니다. 하지만 1930년대 이효석은 <쪽정의 사상>을 통해서 상호인정과 교류의 가치를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2주차에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7주차에서 허준과 엄홍섭의 작품을 통해 해방직후 한국인의 국경이동과 타자에 대한 환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입니다. 이시기에 한국은 냉전과 한국전쟁 분단 그리고 미국화와 산업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은 식민지로 부터 해방되었지만 곧이어 분단됩니다. 그리고 1950년에서 1953년에는 남과 북이 싸운 한국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휴전 직후 한국은 냉전체제 아래에서 자유진영국가의 하나로서 한국 문화를 전개해 갑니다. 냉전은 한국인이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독재 정권이 이어졌습니다. 냉전과 독재가 겹치면서 한국인은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기 한국문화는 국가의 억압과 검열을 전제로 전개되었습니다. 또한 냉전은 한국인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냉전시기에 한국인의 이동범위는 휴전선 이남으로 좁아졌습니다. 한국인은 대신 미국을 통해서 서양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산업화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시기 한국인은 산업을 발전시키서 국가의 경제를 개발하고자 하였고 동시에 자기 자신의 삶도 근대적인 삶으로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1960년대 전해린이 번역한 <데미안>은 한국인에게 큰사랑을 받았습니다. <데미안>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당시 경제개발과 함께 한국인이 서양의 교양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자기를 계발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0주차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한국인은 문학 영화 미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의 특수성과 서구의 보편성을 갖춘 한국문화가 무엇인지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시민과 대중은 억압적인 정책질서의 저항하였습니다. 1960년 한국의 시민과 대중은 권위주의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4.19혁명을 일으킵니다. 4.19혁명을 통해 한국의 시민과 대중은 민주주의를 성취하였고 냉전 너머의 평화를 꿈 꾸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7주차와 9주차에 공부합니다. 4.19혁명이후 다시 군사독재가 이어지지만 한국의 시민들은 한국문화를 통해 독재정권 아래에서 민주화의 가치를 지향하였습니다. 9주차에서는 김지하의 작품을 10주차에서는 김원일의 작품을 통해 이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1980년 다시 독재정권이 집권하고 시민들을 억압하자 한국의 시민들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였고 그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9주차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침내 1987년 6월 한국의 시민과 대중은 6월 항쟁을 통해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합니다. 박태순은 한국의 혁명에 대해 소설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7주차에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1990년대 중후반 이후입니다. 이시기에 한국은 탈냉전, 지구화, 초국적 자본의 등장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냉전의 종언과 함께 한국은 다시금 지구화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이제 한국인은 다시금 전세계로 이동하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과 교류하면서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인은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바탕으로 문화를 창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한 드라마 영화 음악 등이 세계곳곳에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한류가 등장한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 정보기술과 초국적 자본은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였습니다. 이제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을 통해 세계는 이전보다 더 빨리 하나로 연결되고 소통합니다. 이시

기는 지금 현재의 한국문화와 직접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한국문화의 정체성이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4단계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19세 말에서 20세초가 1단계, 1920에서 1930년대가 2단계, 1960에서 1970년대가 3단계, 그리고 1990년대 이후가 4단계입니다. 이과정은 전지구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한국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 경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국 현대문화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한국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창조하고 향유하는 한국 현대문화를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현대문화의 토대와 가치에 대해 공부하면서 한국문화의 특징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4차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차시 | 정리하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5차시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이번 1주차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강의는 한국문화의 토대와 가치의 첫 강의입니다. 오늘은 ‘한국문화의 정체성’이라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살펴보았습니다. 한국문화가 외국문화의 영향 안에서 성장한다는 시각도 있었고, 한국문화가 고유한 성격을 가진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문화를 외래문화와 한국의 전통이 만나서 접촉하고 변화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을 문화접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말 <천로역정>의 번역과정을 문화접변의 시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천로역정> 번역은 서양문학 작품이라는 외래문화가 한국의 독서 및 출판문화라는 전통과 만난 사례입니다. 그 만남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어긋남도 있었습니다. 이후 한국문화는 그 어긋남을 조정하면서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의 정체성이 변모하는 과정을 크게 네 단계로 정리하여 살펴보았습니다. 1단계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문명전환기였습니다. 2단계는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식민지 근대의 시기였습니다. 3단계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 냉전과 독재 아래에서 미국화와 산업화가 겹친 시기였습니다. 4단계는 1990년대 이후 탈냉전 세계화의 시기입니다.

이제부터 한국문화의 토대와 가치 강의에서는 이러한 역사적인 단계를 염두에 두고 한국문화를 공부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강의에서는 한국문화의 토대, 한국문화의 주제 그리고 한국문화의 가치를 각각 공부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2주차에서 4주차까지 3주간 한국문화의 토대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2주차에서는 지구화와 기술의 발전, 3주차에서는 근대화와 도시, 4주차에서는 출판과 글쓰기를 공부합니다. 오늘 1주차 강의를 진행해보았습니다. 강의에 집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주 2주차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학습활동 1: 퀴즈

1. 한국문화의 정체성에 대해 문학사 연구자 김태준은 “원래 민족문화란 독자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요, 인근 부족 또는 민족의 문화의 교류에서 융합되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김태준이 이야기하는 사상으로 걸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2점) ()

- ① 중국문학의 독서가 한국문학의 문예운동으로 이어졌다.
- ② 김태준은 고정 소설과 가사를 한국문학의 전통으로 생각했으며 그 중 춘향정을 주목하였다.
- ③ 춘향전에 영향을 준 중국 문학은 삼국지연의 서사기이다.
- ④ 김태준은 한국문학의 전통이 중국의 외래문학과 만나 새로운 전통을 형성하였다고 보았다.

■ 학습활동 2: 핵심 요약하기

임화가 이야기 하는 ‘문화의 고유성’을 다른 전통에서 출발한 여러 문화가 한국문화와 접촉하면서 만들어 낸 제3의 새로운 형태를 ‘문화 접변’의 용어를 사용하여 서술해 주세요. (2점) ()

■ 학습활동 3: 토론하기

『천로역정』의 한국어 번역본과 중국어 번역본의 차이를 낭독과 묵독의 의미에 방점을 두고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2점) ()

.....

<퀴즈 정답>

- 1. ③



영어 스크립트 | *English Script*

The First Session | Introduction

Hi everyone. Welcome to the lecture 'Foundations and Values of Korean Culture'. The subjects covered in this course are Korean culture, especially Korean contemporary culture. There are three topics we will study: The foundation, subject, and value of Korea's modern culture. First, in this lecture, we will study the foundations of Korean culture. It involves studying the foundation upon which Korean culture has developed. Second, in this lesson, we will study the main agent of Korean culture. It involves studying what kind of people have created Korean culture. Third, we will study the value of Korean culture. It involves studying what values Korean culture is oriented towards. The foundation of Korean culture is from the second week to the fourth week. The main agent of Korean culture is from the fifth week to the seventh week, The value of Korean culture is studied in the eighth week and ninth week. The goal of our lecture is to examine the identity of Korean contemporary culture in three aspects: foundation, subject, and value.

Today is the first one among the ten weeks. In the first week, we will take a historical look at the identity of Korea's modern culture and prepare for the study after the second week. In today's lecture, we will examine the identity of Korean modern culture, and from next week on, we will examine the foundations, main agents, and values of Korean culture. And in the tenth week, we'll recap all the lectures. Today, we will examine the process by which the identity of Korea's modern culture is formed. The key questions in today's lecture are: 'How was Korean modern culture formed, and how had it been developed?' The key words of today's lecture are Korean culture, identity, and acculturation. Let's finish the first session here.

The Second Session |

Hi everyone? It's the second session. In this session, we will look at how to understand Korean culture. What is the identity of Korean culture? Is the identity of Korean culture unique? Or is it just changing over time? During the 20th century, many people wondered what the identity of Korean culture was, and they wanted to define the identity of Korean culture. Today we're going to take a look at some of the answers in the 1930s. The first person to note is a literary history researcher named Kim Tae Joon. Kim Tae Joon was born in 1905. As a child, he studied Chinese characters in Seodang. Kim Tae Joon also studied Chinese literature at Keijo Imperial University, a university in colonial Joseon. He received his academic training in the context of Imperial Japanese academia and Chinese studies. While studying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at university, he also went directly to China. He examined the realities of contemporary East Asia in China and the position of literature inside them. Kim Tae Joon studied Japanese scholarship and Chinese literature in depth and breadth. He explored the identity of Korean culture by studying Korean classical literature based on a broad knowledge on Japan and China. Kim Tae Joon loved traditional Korean culture and searched for cultural assets and materials. When the news was heard that the Hunminjeongeum Manuscript had been found in Andong, Gyeongsangbuk-do, Kim Tae Joon introduced it to Kansong Jeonhyeongpil and let him buy it. That is the National Treasure Hunminjeongeum Manuscript, which is currently in the collection of the Kansong Museum. Based on his research on Korean classical literature, Kim Tae Joon was interested in and intervened in the Joseonhak movement, or the Korean Studies movement, which was actively discussed in Korea in the 1930s. In the 1930s, there was a lively debate in Korea about what the identity of Korean culture was. At the time, some people thought that Korean culture did not have its own identity and that it developed with the influx of foreign cultures. This view does not recognize the uniqueness of Korean culture, and it advocates that Korean culture has been overwhelmed by foreign cultures. The idea affirms the cultural exchange but does not explain the unique identity of Korean culture. On the contrary, some people thought that the identity of Korean culture was unique. They thought that the most brilliant period of Korean culture was the Silla Dynasty. And they thought the traditions of Korean culture formed at that time continued into the 20th century. This idea understands Korean culture from the perspective of uniqueness. This opinion illustrate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n culture, and on the other hand, it understands Korean culture in isolation as something unique but only for Korea. In addition, those who understood Korean culture as unique also understood that Korean culture and foreign cultures conflict with each other. On the contrary, if you consider the uniqueness of Korean culture to be pure, there is a risk that you turn to an exclusive attitude towards foreign culture. Kim Tae Joon distanced himself from these two thoughts. Kim Tae Joon did not emphasize the



influence of foreign cultures only, nor did he describe Korean culture as an extremely indigenous culture. He respected the traditions of Korean culture but did not understand them in isolation. He believed that Korean culture developed and prospered through contact with other cultures. Kim Tae Joon said, "Originally, a country's culture is not composed of its own, It is a fusion of cultures with nearby tribes or peoples." He thought Korean culture has been developed from the previous traditional culture that had encountered foreign cultures from surrounding countries. Kim Tae Joon explained that when traditional Korean culture meets a foreign culture, the two are fused together and are difficult to distinguish from one another. As the traditional culture of Korea meets and fuses with foreign cultures, it takes a new step forward. The new stage of Korean culture that was thus created soon becomes a new tradition in Korea, Then the culture is brought into contact with and interacts with other foreign cultures. Kim Tae Joon thought that Korean culture developed through repetition of this process. Kim Tae Joon valued Korean traditions, but he also valued foreign cultures at the same time. As traditions and foreign cultures meet, Korean culture is formed and developed. Kim Tae Joon studied Korean classical literature in depth, and he thought that Korean (literature?) also developed in this process. He noted that Koreans during the Joseon Dynasty were also actively interested in Chinese literature, and that Chinese literature was quickly introduced into Korea. He explained that reading Chinese literature led to the literary revival of Korean literature. The one that Kim Tae Joon attaches great importance to is Chunhyangjeon. He considered classical novels and lyrics to be the tradition in Korean literature. In addition, he thought that Chinese novels such as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Romance of the Western Chamber, etc., entered Korea as an alien culture. Kim Tae Joon believed that the tradition of Korean literature met Chinese literature from abroad, and thus formed a new tradition called Chunhyangjeon.

Im Hwa, a literary historian, critic, and poet of the colonial period, also agreed with Kim Tae Joon. Born in 1908, Im Hwa initially showed a keen interest in the prevalence of Western culture, however, he became interested in Korean classics, and later wrote modern literature. Im Hwa said that it doesn't make much sense to ask how pure a culture is once it was already established. Im Hwa also explained that culture enriches itself by incorporating foreign cultures. Furthermore, he saw that the 'uniqueness' of Korean culture did not actually exist as something unique. He believed that different cultures that originated from different traditions contact each other in Korea, the third place, and create a new form of Korean culture. That is what we refer to as the 'uniqueness of culture'. And Im Hwa used this frame when writing the history of Korean modern literature. He argued that classical novels such as Chunhyangjeon shaped the tradition of Korean literature, and that Western literature, which came through Japan in the early 20th century, met tradition and formed the modern literature of Korea. He theorized this process a little more, and said that the traditions of the past come into contact and fuse with the transplanted culture to create something new. And he said that the subjectivity of a person who fuses traditional and foreign cultures is important. Korean culture is formed in the process of merging traditional culture with foreign

culture with subjectivity. This view of Kim Tae Joon and Im Hwa can be called 'accultur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communication, etc., various nations exchange cultures with each other. At this time, the process by which one society borrows and transplants other social cultures according to their own needs and combines them with their own traditions is called 'acculturation'. Acculturation does not understand a country's culture as isolated, but also acknowledges the influence of foreign cultures. However, acknowledging the influence of a foreign culture does not mean non-subjective acceptance. Acculturation refers to the process by which a country's culture accepts and fuses foreign cultures according to their subjective needs. Kim Tae Joon and Im Hwa thus explained the identity of Korean culture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interchange. In this lecture, we will also look at the process by which the identity of Korean culture is formed through this process of acculturation. In the second session, we looked at the way Kim Tae Joon and Im Hwa understood Korean culture in the 1930s. They were interested in both traditional and foreign cultures, and they thought that it was Korean culture that met and fused the two. This view is called acculturation. This is it for the second session.

The Third Session |

Hi everyone. This is the 3rd session. In this session, we will take a close look at the process by which traditional and foreign cultures meet as well as how the identity of Korea's modern culture is formed.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nd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he East Asian country Korea met with the West. During this period, the two traditions of two cultures—Korean and Western—met. Meeting meant integration, but there were also some discords. We will examine the aspects of the integration and discords between traditional and foreign cultures through the text of *Pilgrim's Progress*.

Pilgrim's Progress was created using the allegorical technique. Many characters that Christians meet are real people, but it also refers to the many thoughts and feelings that arise in Christians' minds who are advancing toward Heaven.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Western missionaries came to East Asia to preach Christianity. Western missionaries translated the Bible and *Pilgrim's Progress*. *Pilgrim's Progress* was translated in East Asia in the mid-to-late 19th century and is one of the bestsellers of East Asia to this day. The book you see now is the book *Pilgrim's Progress*, published in 1895. This book is the result of a meeting between foreign and traditional cultures. First, the contents of the book are English literary works in 17th-century. The contents itself came from a foreign country. By the way, the language of the book is Korean, and the Korean language is written in Hangeul. The characteristic of *Pilgrim's Progress* is that it has a lot of pictures. There are also pictures in the Korean version of *Pilgrim's Progress*. By the way, the figures in the pictures are wearing Korean costumes. They wore Hanbok and wore a traditional hat, Gat. The Korean version of *Pilgrim's Progress* has the same form and printing method as the novel books of the traditional Joseon Dynasty. In other words, Chulloyeokjeong (the Korean title of *Pilgrim's Progress*)” is an expression of foreign works in the Korean language, letters, and paintings. It is a meeting of foreign cultures with Korean traditions. Thus, the Korean *Pilgrim's Progress* is a meaningful example of the acculturation between foreign cultures and Korean cultures. This book is one of the first Western literature pieces translated in Korea. This book was loved by Koreans who were interested in new civilizations and the world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However, there is also a discrepancy to this encounter. To understand the discrepancy more clearly, it is necessary to compare it with the Chinese version of *Pilgrim's Progress*. This is the Chinese version published in Shanghai. The Chinese version of *Pilgrim's Progress* was translated before the Korean version of *Pilgrim's Progress* and influenced the Korean version. In China, *Pilgrim's Progress* was translated into two languages. They are Hanmun and Chinese. When *Pilgrim's Progress* was translated in Korea, it was translated into a single language. However, it was printed either on woodblock or in typeface. By the way,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shape of the book between Chinese and Korean version. This is what the Chinese version looks like. And this is what the Korean version looks like. Did you



see any differences between the two versions? There are pictures in both Chinese and Korean books. This is what they have in common. In addition, the Chinese version wa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and the Korean version was written in Hangeul. Chinese versions have spaces between words, punctuation, and comments. However, the Korean version does not have them. The reason of the difference is that the Chinese version is a text suitable for silent reading, and Korean version is a text suitable for oral reading. At present, when we read a book, we read silently, that is 'a silent reading', and we read closely in detail, that is, 'an intensive reading'. And we usually read alone. However, this culture of reading was created in the modern era. In traditional Korea, books were recited. When someone reads the book aloud, and the other person heard the contents of the book he was reading. When they read a book like this,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e book accurately. Therefore, they would read the book in a way that you understand the whole story as a 'read through'. In traditional Korea, a storyteller read a novel aloud in a public place, while others heard it. It was a community read. In the traditional era, Korean novel books were produced, which was suitable for reading together. The same was true of the Korean folklore *Chunhyangjeon*, and the *Three Kingdoms*, a translation of the Chinese novel. Both books were written in Korean Hangeul and produced without any spacing between words. The Korean version of *Pilgrim's Progress* was also produced in the same form of books as the classical novel *Chunhyangjeon* and the translated novel, *Samgukji*. The Korean version of *Pilgrim's Progress* was a translated novel but it was translated and published according to Korea's reading and publishing traditions. In Korea, *Pilgrim's Progress* was published in a way suitable for reading together. But there's a culture conflict. The Korean translation of *Pilgrim's Progress* was a suitable form for reading through, but it requests to be perused. *Pilgrim's Progress* is a work using allegory. As the Christian figure moves toward Heaven, he encounters many characters, the personified people's minds. Thus, the readers are asked to understand what kind of characters Christians encounter on the way to heaven. In other words, they need to understand clearly what kind of heart Christians have to have when going to heaven. The book asked the reader to peruse it, but the published book was more suitable for reading through than perusal. The Chinese version of *Pilgrim's Progress* was published in a suitable way for perusal. Spacing, punctuation, and comments are tools for the reader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content of a book. Moreover, since the Chinese character is an ideogram, even if the reader encounters a character with a strange name, when the reader sees the Chinese characters, they can guess what they mean. Let's take an example. In *Pilgrim's Progress*, a character named Pliable appears. Chinese readers can understand what it means by looking at the Chinese characters of the name. The reader can guess the literal meaning of the name as "to move easily", thus, it means "to be distraught." However, if the Korean version of *Pilgrim's Progress* is written as "Icheon" in the phonetic alphabet in Hangeul, the reader can read it, but it is difficult to know the meaning. *Pilgrim's Progress*--a foreign literature that needs to be perused encounters the Korean culture that is accustomed to reading through. The encounter is a bit

discrepant. Of course, Korean translators were also well-aware of this discrepancy and prepared to cope with it. First, the translator suggested to the readers how to read, in the preface of Korean version of Pilgrim's Progress. In the preface, the names of the nice people are made good, and the names of the wicked people are made evil. It asks the readers to guess meanings of their names. In other words, it requested readers to peruse it. Second, the translators added a character introduction to the front part of the book. The book introduced the names and their meanings of the characters to help the readers pay attention to the names. You can't change the form of the book, however, the translator suggested to the reader the best way to read it in the situation.

번역X In the first translation of Pilgrim's Progress, there was a slight discrepancy between the foreign cultures and Korean cultures. Despite these discrepancies, Korean readers read Pilgrim's Progress and speculated about the new world and life. Through this work, Koreans wanted to learn about the newly encountered West, contemplate a new world, and open a new life. Through the process, they created a new Korean culture. And the translation of Pilgrim's Progress left a new challenge in the history of Korean culture. The translation of Pilgrim's Progress made Korean culture's reading method very different from the reading methods of the past, which were reading through, recitation, community reading. Koreans started to think about perusal, silent reading, and individual reading. And Korean culture tried to find the answer to the question, "What is the form of a book that fits perusal, silent reading, and individual reading?" By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Korea had found a form of book suitable for contemplation and perusal. Through the form of such a book, the publishing culture of Korea was developed. There were changes in the publication of Pilgrim's Progress, as well. 15 years later, in 1910, Pilgrim's Progress was reprinted. When Pilgrim's Progress was republished, the sentences were translated as they were, but Korean names were written with the Chinese characters in parentheses. By writing the Chinese characters together, the reader could guess what the character's name means. Korean culture developed while compensating for the discrepancies. Through Pilgrim's Progress, we have seen how foreign cultures met the traditions of Korean culture and how they created a new Korean culture. When foreign cultures and traditional cultures first meet, they may not correspond with one another. However, Koreans developed the Korean culture by adjusting for the discrepancies. This is it for the third session.

The Fourth Session | Introduction

How are you doing? It's the 4th lecture. Today's lecture will examine the transformation process of modern Korean culture's identity step-by-step. The identity of modern Korean culture is formed through four major phases. The first phase is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o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It is the transition period of Korean civilization, when Korea, which was an East Asia country, met the West. The second phase is from the 1920s to the 1930s. It is a time when the identity of Korean culture is restructured through the experience of colonial modernity. The third phase is from the 1960s to the 1970s. It is a time when the cultural identity of Korea was restructured once again through the Cold War, the Korean War, Americ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The fourth phase is from the mid or late 1990s. It is a period when Korea's cultural identity is once again structured through the post-Cold War, the emergence of transnational capital, and globalization. Today's lecture will cover the four phases of forming the identity of Korean culture by overlapping the characters with whom we will study together and work.

The first phase is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o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We looked at the situation of this period through "The Pilgrim's Progress" a moment ago. Korea, which formed a common cultural sphere with China and Japan in the traditional era, experienced a civilizational transition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o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Along with the inflow of knowledge about the world, the world perceived by Koreans spatially expanded to the global scope. Moreover, with the development of modern technology, railroads and communications were installed in Korea. Korea became connected to the world through railroads and communications. Korea laid the foundation for communicating with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or going out into the world during this time. As a result, Koreans perceived the whole world as one earth and experienced a contemporary character with people of the world. In particular, Koreans could travel around the world by railway. Namseon Choi expressed the surprise that the world is connected by railway through "Segyeiljuga", his poem. And in 1902, female writer Hye-seok Na actually traveled around the world. We will study Namseon Choi in the 2nd week and Hye-seok Na in the 6th week. And during this period, Westerners, Western publications, Western thoughts, and Western systems entered Korea. As we studied by using "The Pilgrim's Progress" as a case in the third lecture, when Korean tradition met Western culture, they could clash due to cultural differences. However, Koreans created the identity of Korean culture by adjusting to the differences. One of the representative Western literature that came into Korea during this period was Tolstoy's works. Koreans independently read this work. I will cover this in Week 7. The changes in Korea that occurred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laid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culture in the 20th century.



The second phase is from the 1920s to the 1930s. During this period, Korea became a colony of the Japanese Empire. However, in 1919, Koreans demanded national independence through the March 1st Movement. The March 1st Movement was a demonstration for independence, and the demonstration sought peace at the same time. I will explain this in Week 10. Korean citizens could be born again as modern subjects through the March 1st Movement.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Koreans wanted to create new lives by breaking free from the forced limitations of their lives. Korean citizens wanted to realize democracy in their lives. I will examine the feature of Koreans who tried to realize democracy in their lives through Myung-hee Cho's "Nakdong River". Although Korean culture at this time pursued modernization and democracy, it was constrained by the colonial situation. Cities were made and a capitalist economy was formed in Korea in the 1920s and 1930s. Consuming spaces such as department stores and cafes also were created. Furthermore, as newspapers and magazines run by Koreans were founded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cultural spaces where Koreans could participate opened. Korean writers created modern Korean literature by fusing the form of modern literature that arose in the West with the reality of Korea. Taewon Park depicted a day in Gyeongseong, a city, at the time and asked what happiness was in it in his novel, "A Day in the Life of Kubo the Novelist". Hwa Im portrayed the life of a brother and a sister who participated in the labor movement in his poem, "My Brother and the Brazier". We study the city, Taewon Park, and Hwa Im in the 3rd week. Many literary works were created in the 1920s and 30s. We are going to study Tong-Ju Yun and his literature in the 4th week and review Yuksa Yi and his literature in the 8th week. As the main subjects of Korean modern culture, Tong-ju Yun and Yuksa Yi tried to create new values of Korean culture between East and West traditions and modernity. At the same time, the movement and reading of these two writers do not stay within the boundary of Korea, but they are based in East Asia. Korean modern culture was formed and developed through the exchange of language and culture. Of course, exchanges sometimes cause dissension. However, Hyo-Seok Lee mentioned the value of mutual recognition and exchange through "Jukjeong Consciousness" in the 1930s. We'll examine this in Week 2. Moreover, we will study the border movement and hospitality of Koreans toward strangers after liberation through the works of Jun Heo and Hong-seop Um in the 7th week.

The third phase is from the 1960s to the 1970s. During this period, South Korea experienced the Cold War, the Korean War, national division, Americ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Korea was liberated from colonization, but it was soon divided. From 1950 to 1953, it experienced the Korean War, a war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mmediately after the armistice, South Korea developed Korean culture as one of the free nations in the Cold War system. The Cold War limited the scope of what Koreans could think and speak. Moreover, a dictatorship continued in South Korea. While experiencing the Cold War and dictatorship at the same time, Koreans could not express their critical thoughts about the system freely. During this period, Korean culture was developed under the premise of state oppression and censorship. Moreover,

the Cold War also drastically reduced the spatial range that South Koreans could move. During the Cold War, South Koreans could move only within the sou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Instead, South Koreans actively accepted Western culture through the United States and tried to grow the economy through industrialization. During this period, South Koreans wanted to develop the national economy by boosting industry, and at the same time, they wanted to transform their life into modern life. “Demian”, translated by Jeon-hyerin in the 1960s, was greatly loved by Koreans. “Demian” became a bestseller because South Koreans tried to develop themselves by absorbing Western culture along with economic development. I will cover it in week 10. Furthermore, South Koreans agonized over what would be the Korean culture that had the uniqueness of Korea and the universality of the West in various fields such as literature, film, and art. Moreover, South Korean citizens resisted the oppressive policy order. In 1960, Korean citizens raised the April 19 Revolution that overthrew the authoritarian dictatorship. South Korean citizens achieved democracy through the April 19 Revolution and dreamed of peace beyond the Cold War. We study this in weeks 7 and 9. Although the military dictatorship continued again even after the April 19 Revolution, South Korean citizens pursued the value of democratization under the dictatorship through Korean culture. We plan to examine it through Ji-ha Kim’s work in week 9 and through Won-il Kim’s work in week 10. When the dictatorship seized power again in 1980 and suppressed citizens, South Korean citizens joined the Gwangju Democratic Uprising of May 18 and recorded it. I will cover it in week 9. Finally, in June 1987, South Korean citizens ended the dictatorship and realized democracy through the June Democracy. Tae-soon Park wrote a novel about the revolution of South Korea. We are going to study this in week 7.

The fourth phase is after the mid or late 1990s. During this period, South Korea experienced post-Cold War, globalization, and the emergence of transnational capital.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South Korea faced a period of globalization. South Koreans could create a culture while moving around the world again and interacting with people of various nationalities. In addition, South Korean could freely create a culture based on their thoughts and feelings by realizing democracy. Dramas, movies, and music produced in South Korea are well-received around the world. The Korean Wave emerged. Moreover, Internet information technology and transnational capital have connected the world as one. Now, the world connects and communicates even faster than ever before through the Internet and mobile technology. This period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present Korean culture.

So far, we have reviewed the historical changes in the identity of Korean culture in four phases. Phase 1 is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early 20th century, phase 2 is from the 1920s to the 1930s, phase 3 is from the 1960s to the 1970s, and phase 4 is from the 1990s. All countries around the world experienced the process in common and South Korea experienced it according to the historical situation of Korea at the same time. We can examine the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of Korean culture by studying the process of forming the identity of modern Korean culture. Moreover, we can historically understand the modern Korean culture that we have created and enjoyed. You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culture better from various aspects while studying the foundations and values of the Korean modern culture in the future. This will conclude the fourth lecture.

The Fifth Session |

Hi everyone. This is the fifth session. In this session, we will recap the first lecture. The lecture of the first week was the first lecture on the foundations and values of Korean culture. Today, we looked at the issue of 'identity of Korean culture'. First, we looked at how to understand the identity of Korean culture. There was a view that Korean culture grows within the influence of foreign cultures. There was also a view that Korean culture had its own characteristics. However, we wanted to understand Korean culture as a process in which foreign cultures and Korean traditions met, interacted, changed, and created a new culture. I mentioned this is 'acculturation'.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we examined the translation process of the Pilgrim's Progress from the perspective of acculturation. The translation of Pilgrim's Progress is an example of how the foreign culture of Western literary works met with the tradition of Korean reading and publishing culture. The meeting was meaningful. But at the same time, there were some discrepancies. Since then, Korean culture has developed by adjusting its discrepancies. Also, we have examined the transformation of Korean culture's identity in four major phases. The first phase was the transition period of civilization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o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he second phase was during the colonial period from the 1920s to the 1930s. The third phase was a period of overlap between Americ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from the 1960s to the 1970s under the Cold War and dictatorship. The fourth phase is a period of post-Cold War globalization since the 1990s.

From now on, we will keep these historical phases in mind when studying the Foundations and Values of Korean Culture. In the future, in these lectures, we will study the foundations of Korean culture, the main pioneers of Korean culture, and the value of Korean culture, respectively. First, we will study the foundations of Korean culture for three weeks from the second week to the fourth week. In the second week we will study globalization and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in the third week, modernization and the city, and in the fourth week, publishing and writing. I have done the first lecture today.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o the lecture. We'll meet next week for the second lecture. Thank you.

중국어 스크립트 | Chinese Script

第1課時 |

大家好！欢迎大家来到“韩国文化的根基与价值”课堂。本课程主要讲解韩国文化，特别是韩国现代文化。我们要学习的主题共分为三个，分别是韩国现代文化的根基，主体和价值。首先，我们要学习的是韩国文化的根基。了解韩国文化的根基就是要学习韩国文化是在什么基础上发展的。其次，我们要学习韩国文化的主体。我们要了解是什么人在不断创造和发展韩国的文化。再次，我们要学习韩国文化的价值。了解韩国文化拥有什么样的价值。第二周和第四周主要学习韩国文化的根基。第五周和第七周主要学习韩国文化的主体。第八周和第九周主要学习韩国文化的价值。本门课将从根基、主体和价值三个层面全面分析韩国文化的本质。

今天是我们十周课程的第一堂。第一堂课我们将先从历史的层面分析韩国现代文化的本质，并未第二周将要开始的学习进行准备。今天我们首先了解韩国现代文化的总体定义，从下周开始，我们将分别从根基、主体和价值三个方面进行学习。第十周，也就是最后一堂课我们将对正门课程内容进行总结。今天我们先来看韩国现代文化是如何形成的。今天这门课我们将围绕以下几个问题来进行。“韩国现代文化是如何形成的，并是如何发展的”。本堂课的关键词是韩国文化、本质和文化演变。第一课时的内容就讲到这里。



第2課時 |

大家好，现在我们开始第二课时的内容。在这个课时，我们来一起了解一下应该如何理解韩国文化。韩国文化的本质是什么呢？韩国文化是韩国自古便已经形成？还是随着时代的变迁在不断变化呢？在20世纪，很多人都思考韩国文化的本质是什么，并对韩国文化的本质进行的解释。今天让我们来看看1930年代的一个答案。首先我们需要认识的是一位研究文学史的专家金台俊。金台俊出生于1905年，少时的金台俊在书堂里学习了汉字。在之后的殖民时期的朝鲜时代，金台俊在京城帝国大学学习了中国文学。在学校他接受日本的大学教育模式并学习了中国学。在大学研究中国古典文学的过程中，他还亲自前往中国。在中国，他了解到了同时代东亚地区的现状以及文学的地位。金台俊对日本的学术以及中国的文学进行非常深入的研究。通过对日本和中国的研究，他从更宽广的角度对韩国的古典文学进行了研究，对韩国文化的本质进行的探索。金台俊对韩国传统文化饱含深情，曾亲自寻访并找寻遗失的文物文献。当他听说在庆尚北道安东发现了训民正音解例本的时候，金台俊将之告诉涧松全荃弼并让他将其收购。这就是现在收藏在涧松美术馆的国宝训民正音解例本。金台俊通过对韩国古典文化的研究，他也加入到了在1930年代当时韩国社会上非常活跃的朝鲜学，也就是韩国学运动中。1930年代是对韩国文化本质探究的一个非常活跃的时代。在当时，有一部分人认为韩国文化的没有本源，认为韩国文化是随着外国文化的注入而发展起来的。这一观点其实是否定了韩国文化的本土性，认为外国文化掩盖了韩国文化。这一观点虽然肯定了文化的交流，但并没有从说明韩国文化的本质。相反，也有一部分人坚信韩国文化的独立性和特有性。他们认为韩国文化的鼎盛时期是新罗时代。新罗时代形成的韩国传统文化一直维持到20世纪。这样的观点是从固有性的角度来理解韩国文化的。虽然这中观点突出韩国文化的固有特性，但同时也强调了韩国文化仅为韩国所有，是一种文化孤立性观念。认为韩国文化是固有文化的这部分人，他们也将韩国文化与外国文化置于对立的角度进行理解。这样的角度在注重韩国文化的固有性的同时，也难免出现对外国文化的排斥态度。金台俊没有站在以上两种观点的任何一方。金台俊没有单方面强调外来文化的影响，同时也没有主张韩国文化是完全本土的固有文化。他虽然尊重韩国文化的传统性，但并没有从孤立的角度去分析。他认为韩国文化是在与别国文化的接触过程中逐步发展起来的。金台俊曾说：“所谓民族文化，从来都不是独立形成的”“是在与临近的部落和民族的交流过程中进行融合而成”。他认为，自古以来，韩国的传统文化不断与周边国家传入的外来文化进行接触，因此韩国文化才逐步发展起来。他提出，韩国的传统文化在与外来文化的接触中不断相融，在这一过程中，两种文化逐渐变得难以区分。韩国的传统文化在与外来文化的不断融合，变使得韩国文化不断向前的发展。如此形成的新的文化，又将变成新的韩国传统文化。而这样的文化又与外国文化接触并交流。金台俊认为正是这样一个不断重复的过程才促使韩国文化的不断发展。金台俊认为强调韩国传统的同时，也必须注重外来文化的重要性。传统与外来文化的相遇才造就了韩国文化的形成与发展。金台俊对韩国古典文化有着深刻的研究，他认为韩国古典文化也是在这一过程中形成的。他说朝鲜时代的韩国人非常喜爱中国文学。中国文学也快速地流入到了韩国。中国文学典籍也促成了韩国文学的文艺复兴。金台俊非常看重韩国文学的古籍《春香传》。他认为古典小说和歌辞是韩国传统文学。而《三国演义》、《西厢记》等中国小说是外来文化进入韩国。他认为韩国传统文学与来自中国的文学相遇之后诞生了《春香传》这样新的传统文学。

日本殖民时期的著名文学史学家、批评家、诗人林和也统一金台俊的这一观点。出生于1908年的林和，起初对于西方文化的深感兴趣。但之后他更关注于韩国古典文学，并撰写了现代文学史。林和曾说道强调文化的单纯性毫无意义。他也认为文化原本就是在吸收外来文化的过程中不断壮大的。他认为韩国文化的独立性并不是以固有的东西存在的。他说，从不同的传统出发的各种文化在韩国相互接触，将韩国文化打造成第三种新形态。这就是“文化的固有性”。而林和在撰写现代文学史的时候也是持有这样的观点。

他提到像《春香传》这样的韩国古典小说形成了韩国传统文学。而20世纪通过日本流入韩国的西方文学与韩国传统文学相遇后变形成了韩国现代文学。他将这一过程更加理论化，称古往的传统与外来的文化碰撞交融，从而诞生了新的事物。而促使传统文化与外来文化交融的人的自主性是非常重要的。在保持自主性的前提下将二者进行融合才形成了韩国文化。金台俊和林和的这种观点可以称为“文化演变”。随着交通和通讯技术的发展，来自各个国家的人们不断的进行文化交流。在这个过程中，生活在某个社会人们会根据自己的需要来采用其他社会的文化，并将其与自身的传统文化进行结合，这一过程就是“文化演变”。文化演变不是把一个国家的文化理解为孤立的，而是承认外国文化的影响。但是，承认外国文化的影响，并不意味着可以无自主性的接受。文化的演变应该是一个国家在保持自主性的同时，根据所需来接纳并融合外国文化的过程。金台俊和林和从文化演变的视角向我们解释了韩国文化的本质。在本课程中，我们也将通过对文化演变过程的了解来学习韩国文化的本质的形成。第二课时我们学习1930年代金台俊和林和对韩国文化的理解方式。他们都重视传统文化和外来文化，认为两种文化的相遇和融合才形成了韩国文化。这样的观点被称为文化演变。第二课时就到这里。

第3課時 |

大家好，现在开始第三课时的内容。在这个课时，我们来具体的了解以下韩国传统文化与外来文化的融合形成韩国现代文化的本质的具体过程。19世纪末20世纪初，位于东亚的韩国与西方开始了接触。在这一时期，韩国的传统文化遇到了西方外来文化。虽然相遇多为融合，但也有难以融合的时候。接下来，我们通过《天路历程》这本著作来了解一下传统文化与外来文化的交融与错位。

《天路历程》这部作品是以寓言讽刺的表达方式创作的作品。基督徒遇到的各种人物既是真实的人物，也是指基督徒走向天性的心中发生的各种想法和感情。从19世纪末到20世纪初，西方基督教传教士来到东亚传教。西方传教士将圣经和《天路历程》进行了翻译。《天路历程》在19世纪中后叶在东亚地区被翻译，直到现在为止一直是畅销书籍。大家现在看到的这本书就是1895年发行的《天路历程》。这本书可以称为外来文化与传统文化相遇后的产物。首先这本书的内容是17世纪英文的文学作品。内容本身是舶来品。但是书中的文字是韩语，用的是韩文标注。《天路历程》这本书的特色是插图很多。韩文版的《天路历程》也是如此。但是韩文版中插图里的人物，穿着的却是韩国服饰。他们穿着韩服，带着笠。《天路历程》的形态与印刷方式与当时朝鲜时代的传统小说相同。也就是说，《天路历程》是将外国作品以韩国的语言、文字和图片的方式进行表现的。是外国文化与韩国传统文化的结合。因此，《天路历程》这本书可以视为外来文化与韩国文化结合产生的文化演变的实例。这本书在韩国最早进行翻译的外国文学作品之一。19世纪末20世纪初，这部作品深受对外国文化抱有浓厚兴趣的韩国人的追捧。可是，这样的文化融合中也产生了错位的情况。为了更好的理解这一点，我们需要将中文版的《天路历程》拿来作比较。这是在上海出版的《天路历程》中文版。比起韩文版，中文版的《天路历程》翻译的更早，这对韩文版的翻译也产生了一定影响。在中国翻译的《天路历程》共有两个版本。简体版和繁体版。韩国在翻译《天路历程》的时候，只有一种文字版本。可是木版印刷和活字印刷两种方式均有采用。比较一下中文版和韩文版的书本外观就会发现二者的不同。这是中文版的样子。这是韩文版的樣子。大家有没有发现两本书的差别呢？中文版和韩文版都有插图，这是相同点。中国版由汉字标注，韩文版由韩文标注。中文版中有空格、符号和注释。可是韩文版中没有空格、符号和注释。这是因为，中文版适用于默念。而韩文版适用于朗读。现在我们读书的时候通常默念，就是不出声的读，还有精读，就是仔细详读。大多时候都是自己在读。但是这样的读书文化是近代才形成的。在韩国的古代，书是要发声朗读的。有人在出声朗读书籍，而其他人在听。这种读书方式，难免会造成无法正确理解书的内容。因此通读，也就是完整的阅读书籍成为读书方式。在韩国的古代，说书人在公众面前说书，人们则听他说出来的小说。这就形成了一种共同阅读的形式。当时韩国的小说都是以适用于朗读、通读和共同阅读的阅读方式编纂的。包括韩国的古典小说《春香传》和翻译成韩文的中国小说《三国演义》。这两本书都是由韩文书写，字里行间都没有空格。《天路历程》也同古典小说《春香传》和翻译小说《三国志》一样的形式出版。虽然《天路历程》是对外国文学作品的翻译，但是确实遵循传统的韩国阅读文化和印刷文化进行出版的。在韩国，《天路历程》以适用于通读、朗读和共同阅读的阅读方式印制而成。但是同时，文化冲突也随之出现。虽然韩文版的《天路历程》适用于通读，但《天路历程》的内容需要读者进行精读。《天路历程》这部作品是以寓言讽刺的表达方式创作的。书中的人物基督徒在前往天国朝圣的路途中，多次遇到将内心拟人化的人物。因此，读者们在阅读的过程中需要理解基督徒在前往天国的路上遇到了什么样的人物。换言之，基督徒是怀着什么样的内心走上了前往天国的路。作品内容需要读者的深度思考和精读，但是出版的书籍更适用于通读。中文版的《天路历程》则是适用于精读。书中的空格、字符和注释都能够让读者更加准确的理解文字内容。况且汉字是表意文字。即便是读者读到了一个生僻字，但通过对汉字的解析，也能够大概揣摩其意思。举个例子。《天路历程》中出现过一个易遷的名字。中文版的读者通过这个汉字的形态便可以大概了解其意思。读者能够意识到这个词意为轻易移动，可以猜测是

想表达东奔西撞，彷徨失措的意思。但是，韩文版的《天路历程》却采用的表音文字的韩文书写，因此读者看到这个词时，虽然可以读出其音，但无法领悟其意。《天路历程》就是一种需要精读的外国文学作品与善于通读的韩国阅读文化相遇的例子。不过这种相遇产生了难以融合的情况。当然，韩国的翻译家明白这一点，也对此采取了相应对策。首先，译者在《天路历程》的前序中告诉了读者这本书的阅读方式。在前序中译者提到善良之人以善意命名，恶毒之人以恶意命名。读者可根据名称来领会寓意。这其实就在提醒读者需要精读。其次，译者在正文一开始便补充了书中人物介绍。译者将人物的名称与寓意进行了整理，这样读者可以通过名称来了解书中的内容。虽然，书本的形态无法改变。但译者向读者提出了最适宜的阅读方式。번역X 《天路历程》在最初的翻译过程中出现了外国文化与韩国文化的冲突。但即便如此，韩国的读者依然可以通过阅读《天路历程》来感受和领悟不一样的世界和人生。韩国人通过这部作品认识到了不一样的西方世界，并对人生进行了思考，以此翻开人生新篇章。通过这一过程，全新的韩国文化由此诞生。同时，《天路历程》的翻译，也成了韩国文化史上一个新的课题。通过对《天路历程》的翻译，让韩国人开始思索与传统的诵读、朗读和共同阅读这种传统阅读方式不一样的精读、默念和独立读书。也因此韩国开始思考符合精读、默念与独立读书这样的阅读方式的书本形态是什么？这一问题。进入20世纪，韩国发现了适用于默念与精读的书本形态。通过这样的书本形态，韩国的出版文化也全面发展。《天路历程》对韩国的出版业也带来了变化。在15年后的1910年，《天路历程》重新印制。重新出版《天路历程》的时候，句子原封不动，但在韩文名称后在括号内追加了汉字名称。因为有汉字名称，因此读者便可以领会书中人物名称的寓意。通过对这种错位和冲突进行修订，韩国文化也随之发展。以上就是我们通过《天路历程》这本书来了解韩国传统文化与外来文化的融合，并产生新的韩国文化的发展过程。外来文化与传统文化最初相遇时会出现冲突。但韩国人通过对这些冲突的补充和调整，促使了韩国文化的发展。以上就是第三课时的内容。

第4課時 |

大家好，现在开始第四课时的内容。在本课时，我们将分阶段来了解韩国现代文化本质的变迁过程。韩国现代文化本质的形成过程大体上可分为四个阶段。第一阶段发生于19世纪末20世纪初，这个时期被称为韩国的文明转换期，作为东亚国家的韩国首次接触到了西方文化。第二阶段发生于1920年代到1930年代，这是一个在近代殖民地，韩国文化认同感的重组时期。第三阶段发生于1960年代到1970年代，在冷战、南北战争、美国化和产业化的历史和社会背景下，韩国文化的本质再一次出现重组。第四阶段发生于1990年代中后期，冷战结束、全球化和跨国资本的出现，韩国的文化本质再次被结构化。本课时，我们将学习韩国文化认同感形成的四个阶段和此时期的人物和作品。

第一阶段是19世纪末到20世纪初。上一课时我们通过《天路历程》了解了这一时期的情况。在当时，韩国与中国和日本形成了共同的文化圈，在19世纪末到20世纪初，韩国经历了文明史的转换。随着对世界的认识，韩国人认为的世界在空间上扩展至全球。随着近代技术的发展，韩国也出现了铁路和通信。通过铁路和通信，韩国与世界接轨。这个时期为与世人沟通和走向世界奠定了基础。由此，韩国人认识到世界为同一个地球，并体验到与全人类的同时代性。特别是韩国人从此可以乘坐铁路环游世界。崔南善用作品《环游世界》表现了用铁路连接世界的景象。1902年代的女作家罗蕙锡也环游了世界。我们在第二周学习崔南善，在第六周的课上学习罗蕙锡。在这个时期，西方人、西方出版物、西方思想、西方制度进入韩国。正如在第三课时中学习《天路历程》一样，如果韩国传统文化和西方文化相遇，会因文化的差异而发生冲突。但韩国人通过调整差异，逐渐形成了韩国文化的认同感。这一时期进入韩国的西方文学作品中最具代表性的就是托尔斯泰的作品。他的作品深受韩国人追捧。对此我们将在第七周的课上学习。19世纪末到20世纪初发生的变化为20世纪的韩国文化的发展奠定了基础。

第二阶段是1920年代到1930年代。这一时期韩国沦为日本帝国的殖民地。但在1919年，韩国民众进行三一运动，高呼大韩独立万岁。三一运动既是一场争取独立的示威运动，也是一场追求和平的运动。对此我们将在第十周学习。韩国人通过三一运动，成为了近代文化主体。三一运动之后，韩国人想摆脱束缚，开始新的生活。韩国市民希望生活中实现民主主义。我们将在第4周通过赵明熙的作品《洛东江》了解一下想要在生活中实现民主主义的韩国人的样子。只是这一时期韩国文化虽然追求近代化和民主主义，但是却受到了殖民主义的制约。1920年代至1930年代，韩国的城市形态形成，资本主义经济在韩国起步。此时出现了百货公司、咖啡厅等消费场所。三一运动以后，随着韩国人经营的报纸和杂志的创刊，韩国人可以参与的文化空间随之出现。韩国文学家们将西方的近代文学与韩国的现实相结合，创作了韩国近代文学。朴泰远在小说《小说家仇甫氏的一天》中描述了当时名为京城的城市的一天，在那里他寻思着幸福到底是什么。林和在《哥哥的火炉》中描述了进行劳动运动的妹妹的人生。我们在第三周学习城市、朴泰远和林和。在1920年代至30年代，众多文学作品出现。在第四周我们将学习尹东柱和他的文学作品，在第八周我们将学习李陆史和他的作品。尹东柱和李陆史作为韩国现代文学的主体。他们都为在东方和西方传统和近代之间创造新的韩国文化价值而努力。同时，两人的游历和阅读并不仅是在韩国，而是以东亚为背景。韩国现代文化是通过语言和文化交流形成的和展开的。当然，交流有时也会产生矛盾。但是1930年代李孝石通过《老顽固的思想》提到了相互认可和交流的价值。我们将在第二周学习。在第七周我们将通过许俊和严弘燮的作品了解解放前后韩国人跨越国境的游历和对待外人的态度。

第三阶段是1960年代到1970年代。在这一时期韩国经历了冷战和分裂，以及美国化的产业化。韩国虽然从殖民地解放出来，但随后迎来了分裂。1950年到1953年，韩国和北韩经历了战争。停战之后，韩国在冷战体制下作为自由阵营国家之一发展了韩国文化。对于冷战，韩国人的所想所言有所限制。随后独裁政权上台。随着冷战和独裁的交织，韩国人无法自由表达对体制的批判。这一时期的韩国文化被国家的压迫

和审查笼盖 同时,因为冷战韩国人的活动范围也收到了很大的限制 冷战时期,韩国人的移动范围缩小到三八线以南 韩国人希望通过美国积极接受西方文化,并通过产业化来发展经济 这一年代的韩国人希望通过产业化来发展经济,同时也实现生活的近代化 1960年由田惠麟翻译的《德米安》曾深受韩国的追捧 《德米安》之所以成为畅销书,是因为当时在经济发展的同时,韩国人想把西欧的思想变成自己的东西来后发自我 对此将在第十周进行学习 此外,韩国人在文学、电影、美术等多个领域思考着具备韩国特殊性和西方普遍性的韩国文化是什么这个疑问 同时韩国的市民和民众反正压迫性的政治体制 1960年,韩国民众发起四一九革命,推翻权威主义独裁政权 通过四一九革命,韩国人民实现了民主主义,梦想着超越冷战的和平 对此将在第七和第九周进行学习 四一九革命以后,军事独裁再次延续,但韩国人民通过韩国文化,在独裁政权下追求民主化的价值 我们将在第九周和第十周通过金芝河和金源一的作品进行学习 1980年独裁政权再次执政对人民进行压迫,对此韩国民众发起了五一八广州民主化运动,并对此进行记录 我们将在第九周进行学习 最终在1987年6月,韩国人民通过六月抗争结束了独裁,实现了民主主义 朴泰顺留下了关于韩国革命的小说 对此将在第七周进行学习

第四阶段是1990年代中后期 这一时期韩国经历了冷战结束、全球化和跨国资本的涌入 随着冷战的结束,韩国也迎来了全球化的时代 从此韩国人不在被局限于三八线以南,而是可以踏足全球 韩国人实现了民主主义,可以自由地以自己的想法和感情为基础创造文化 同时,韩国的电视剧、电影、音乐也在全球收到喜爱 韩流由此正式登场 而网络信息技术和跨国资本正好将全球紧紧地联系在了一起 现在通过网络和移动技术,世界比以前可以更快地连接和沟通 这个时期与现在的韩国文化直接相连

以上我们对韩国文化的本质从历史的角度分四个阶段进行了解 19世纪末20世纪初为第一阶段,1920至1930年代为第二阶段 1960至1970年代为第三阶段,1990年代以后为第四阶段 这既是全球人民都感受到的,也是韩国历史上所经历的过程 通过学习韩国现代文化的认同感的形成过程,我们可以了解韩国文化的普遍性和特殊性 从历史上可以理解现在我们所创造和享受的韩国现代文化 今后在学习韩国现代文化的基础和价值的同时,可以更加立体地理解韩国文化的特征 以上就是第四课时的全部内容

第5課時 |

大家好，现在开始第五课时的内容。在这一课时，我们对第一周的讲解内容做一下总结。第一周的课程是韩国文化的根基与价值的第一堂课。今天我们主要了解了“韩国文化的本质”。首先我们学习了韩国文化的本质该如何理解。韩国文化在外国文化的影响下是如何发展的。同时韩国文化又是如何保有固有的特性。但是我们需要从韩国文化在与外来文化交融从而产生新的韩国文化这一角度来理解。这就是所谓的文化演变。之后我们以文化演变的角度了解了19世纪末《天路历程》的翻译过程。《天路历程》的翻译是西方文学与韩国阅读出版文化相遇的例子。这一相遇意义重大。但同时也产生了冲突。之后韩国文化在调解这种冲突的过程中发展起来了。韩国文化本质的变化经历了四个阶段。第一阶段是19世纪末20世纪初的文明转换期。第二阶段是1920至1930年代的殖民近代期。第三阶段是1960至1970年代的冷战独裁之下的美国化与产业化交汇期。第四阶段是1990年代以后的冷战过后的全球化时期。

从现在开始，我们将以这样的历史的阶段性来学习韩国文化的态度和价值。在以后的课程中，我们将分别学习韩国文化的根基、韩国文化的主体和韩国文化的价值。首先在第二周和第四周的三周时间，我们将学习韩国文化的根基。第二周我们将学习全球化与技术的发展，第三周学习近代化与城市，第四周学习出版和创作。第一周的课程就到这里。感谢大家的听讲。我们下周再见。谢谢。